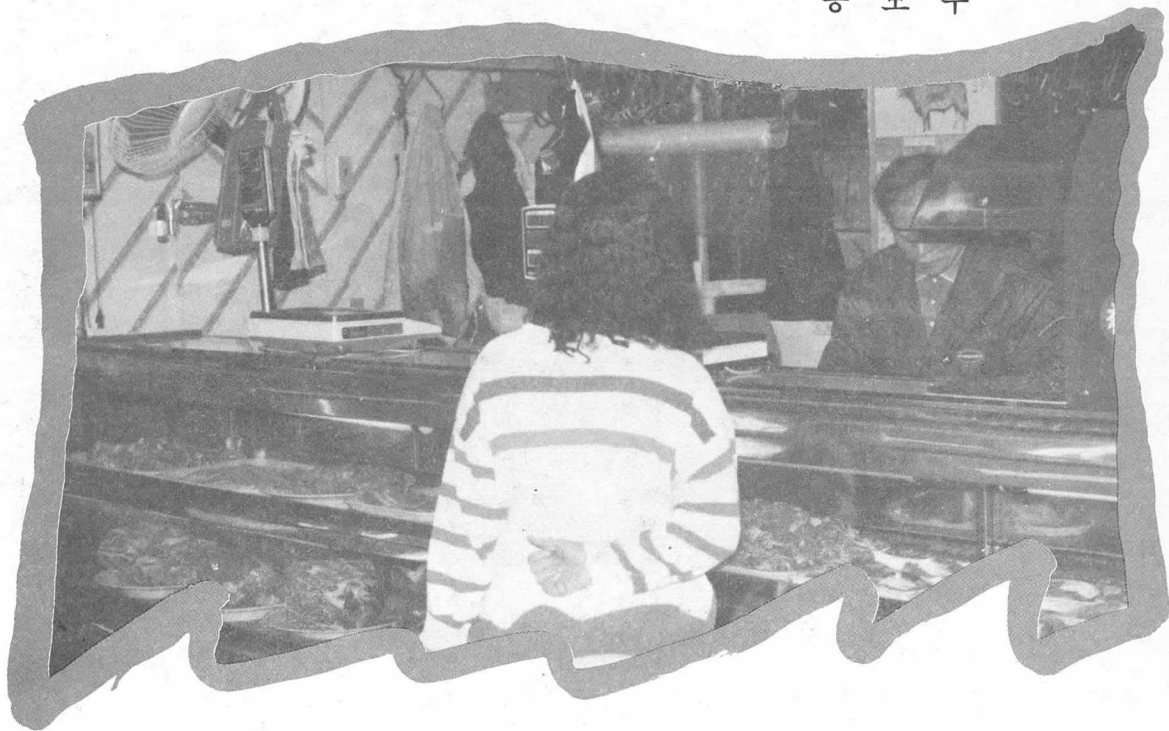


육류가격자율화, 가격만 올린 꼴

-대부분 정육점 부위별 판매 안해

홍 보 부



육류가격자율화는 당초 우려 대로 가격만 올린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육류연동가격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가격을 자율화하자 제도 시행 1개월이 다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정육점에서 부위별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 가격이만 올린 꼴이 돼 이 제도

역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국내 돼지가격 인상에만 머물지 않고 물가당국의 눈총을 받아 잘못하다가는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가격안정을 빌미로 돼지고기까지 수입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85년 5월 이후 시행해

오던 연동가격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산지와 연동이 잘 안되고, 수입개방에 대비해 가격과 품질의 대응력을 기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가격 자율화와 부위별 판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자율화와 부위별 판매제가 조기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 정육점에

〈표1〉 서울소재 백화점 및 정육점의 돼지고기가격

(500g기준, 단위 : 원)

구 분	삼겹살	안 심	등 심	목 심	앞다리	뒷다리	갈 비	평균가격
현 대 백 화 점	3,250	2,100	2,900	2,100	-	-	2,600	2,590
뉴 코 아 백 화 점	3,100	2,000	2,800	2,000	-	-	2,400	2,460
그 랜 드 백 화 점	3,000	2,000	2,800	2,000	-	-	2,300	2,410
대 우 식 육 센 타	22,667	2,500	2,500	2,500	2,333	2,167	2,500	2,452
한 남 정 육 점(한남동)	일률적으로 2,667원(부위별 판매 안함)							2,667
제 일 정 육 점(중앙시장내)	일률적으로 2,500원(부위별 판매 안함)							2,500
경 남 정 육 점(반포동)	일률적으로 2,917원(부위별 판매 안함)							2,917
평 균 가 격	2,872	2,383	2,726	2,383			2,450	2,570

(1991년 1월 21일 현재, 본지 조사)

대해 냉장 쇼케이스를 갖추게 하고 부위별로 진열하는 한편, 부위명칭, 용도, 가격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진열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쇠고기는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안심, 등심, 목심,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 목젓살등 7개 부위로 분할 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가격자율화와 부위별 판매제도 시행 1개월이 다된 시점에서 본지가 서울시내 4개 백화점과 식육센터, 3개 정육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판매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육점에서 부위별 판매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값만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 판매제가 생산자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그에따라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도시행이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내 한남동의 한남정육점은 부위별 진열 및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 돼지고기를 500g당 일률적으로 2,667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중앙시장내의 제일정육점과 반포동의 경남정육점도 종전처럼 부위별로 판매하지 않고 있었으며, 가격도 일률적으로 500g당 각각 2,500원, 2,917원을 받고 있었다.

백화점의 경우 부위별 표시 및 판매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삼겹살의 경우 백화점에 따라 500g당 최고 3,250원이나 받고 있어 가격을 올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가격자율화후 소비자가격 최고 18% 상승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된후 일반 정육점과 백화점 등에서 돼지고기가격을 대폭 인상해 돼

지고기 소비를 위축시키고 돼지고기가 물가인상의 주범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가격인상은 백화점보다는 정육점에서 더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12월의 산지가격은 90kg 두당 15만8천이었으며 금년 1월 21일 가격은 17만4천원으로 7.6% 상승했다. 또 도매시장 가격도 90년 12월엔 kg당 2,842원에서 금년 1월 21일엔 2,937원으로 3.3%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90년 12월에 500g당 2,266원에서 금년 1월 21일에는 2,570원(백화점포함)으로 13.4%나 상승했다. 백화점을 제외한 일반정육점은 2,694원으로 무려 18.9%나 상승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반 백화점과 정육점에서 가격자율화이후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식육판매업소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표2〉 육류가격 자율화이후 가격상승을 비교표

(단위 : 원)

구 분	90.12	91.1.11	상승률	90.12	91.1.21	상승률
산지가격(90kg기준)	158,000	174,000	7.6%	158,000	174,000	7.6%
도매가격(1kg기준)	2,842	3,005	5.7	2,842	2,937	3.3
소비자가격 (500g 기준)	2,266	2,557	12.8	2,266	2,570 (2,694)	13.4 (18.9)

주1) 91. 1. 21 소비자가격은 본지가 조사한 7개 백화점과 정육점의 평균가격임. ()안은 3개 정육점의 평균치임.

주2) 기타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임.

부위별 판매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부위별 판매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육류도체등급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제도정착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의지표현과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7개 부위중 삼겹살, 안심, 등심, 목심, 갈비 등 5개 부위만 진열·판매되고 있었고, 앞다리와 뒷다리는 진열,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또 부위별 가격은 삼겹살이 가장 높아 500g당 최고 3,250원에서 2,667원까지 거래되었고, 다음이 등심으로 최고 2,900원에서 2,500원, 갈비는 2,600원에서 2,300원, 안심과 목심이 똑같이 2,500원에서 2,000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안심, 등심이 가장 비싸고 삼겹살이 가장 싸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돼지

도체등급제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위주로 등급기준이 산정돼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자율화로 양돈생산자, 소비자 모두 피해

또한 정육점을 찾는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부위별로 고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이용(삼겹살)과 불고기용, 찌개용 등으로 찾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주부들이 돼지고기가 7개 부위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과 부위명칭을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오랜기간 전해내려온 식생활 관습과 육류에 대한 기호도, 부위별 판매제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부위 분할에 대한 재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위별 판매제와 가격자율화

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결국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짊어지고, 식육판매업소에 폭리를 가져다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얼마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가격자율화를 시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같은 물가상승이 수입으로 연결될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육류의 가격자율화와 부위별 판매제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초기에 보완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육류도체등급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소비자, 관련인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즉 법이나 제도가 부위별 차등가격제나 도체등급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유통업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루지 않도록 여건조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